

진주문화관광재단, '진주바틱' 개발 통한 창조경제 기대

이도균 기자 | 승인 2023.07.07 01:36 | 댓글 0

기사제보 | SNS | 공유 | 인쇄 | 구독 | 기타

- 진주 봉황이 인도네시아로 날아간 까닭은?

[경남에나뉴스 | 이도균 기자] 경남 진주문화관광재단(대표 민원식)이 인도네시아 창조기업 바틱플랙탈(Batik Fractal), 공동대표 무하마드 루크만과 협업해 진주 봉황설화를 바탕으로 '진주바틱'을 개발했다고 밝혔다.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인도네시아 창조기업 바틱플랙탈이 협업해 진주 봉황설화를 바탕으로 '진주바틱'을 개발했다.

해당 프로젝트는 지역문화를 활용한 콘텐츠 개발 사업의 하나로 한국국제문화교류진흥원(KOFICE)의 지원을 받아 국제협력사업으로 진행됐다.

바틱은 세계무형문화유산으로 등재된 방염 염색기술과 그 문양을 의미한다.

재단은 인도네시아 바틱 공방인 빈하우스(BINhouse)와 협업해 전통 바틱 패턴으로 '진주실크-바틱(Jinju Silk-Batik)'을 제작했다.

이를 현대 한복으로 제작해 인도네시아 현지에서 패션 전시회를 가졌으며, 현지 언론의 큰 관심을 받아 진주 실크를 알리는 기회가 됐다.

올해에는 진주 설화를 담은 '진주바틱(Jinju Batik)'패턴을 개발했다.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인도네시아 창조기업 바틱플랙탈이 협업해 진주 봉황설화를 바탕으로 '진주바틱'을 개발했다.

진주를 상징하는 '촉석루'와 '봉황문'을 사용하고 바틱의 시도물리(Sido Mulih) 디자인을 적용해 만들었다.

시도물리는 인도네시아 자바어로 귀향을 기원하는 뜻으로 '진주에 봉황이 돌아와 태평성대를 이루길 기원합니다'라는 의미를 담고 있다.

진주 바틱 시리즈는 봉황이 진주로 돌아와 태평성대의 기운이 널리 퍼진다는 이야기로 구성했다.

이번 지역문화 콘텐츠 개발 사업에서는 인도네시아의 디자인 IT 기업인 '바틱 프랙탈(Batik Fractal)'과 협업했다.

이 기업은 플랙탈 기술을 활용한 JBatik 소프트웨어를 개발해 현대적 바틱 디자인 개발을 지원하고 있다.

이들은 IT 기술을 활용한 현대화를 통해 전통 유산의 가치를 강화하고 지속가능성을 도모하는 점에서 창조 경제 영역에서 주목받고 있다.



진주문화관광재단과 인도네시아 창조기업 바틱플랙탈이 협업해 진주 봉황설화를 바탕으로 '진주바틱'을 개발했다.

민원식 대표는 진주실크가 백 년의 산업이자 천년의 이야기를 담은 문화로 볼 수 있다고 언급하며, 진주실크에 스토리텔링을 더함으로써 새로운 가치를 창출하고 새로운 소비 시장을 개척하고 있다는 점에서 바틱 프랙탈과 진주실크-바틱 모두 창조 경제의 영역에서 만날 수 있다고 평가했다.

재단 관계자는 이번 하반기에는 '진주바틱'으로 염색한 진주실크를 사용해 제작한 의상을 인도네시아 자카르타의 '코리아 360(KOREA 360)'에서 전시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코리아 360'은 한국 문화 관련 산업 제품을 종합적으로 체험하고 전시 및 홍보할 수 있는 해외 홍보관이다.

저작권자 © 경남에나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도균 기자
다른기사 보기 ▶



당신만안본뉴스

- 함양사과, 2023년 대표과일 선발대회 '대상' 수상
- '진주시 10월 축제·치앙마이 라이프그라프 축제' 교류 협력하기로
- 창원시종합자원봉사센터 이전 개관식 가져
- 경북소방, 2023년 화재조사 학술대회 성황리 개최
- 하동군농기주부모임, 사랑나눔 자선바자회 성료
- [오늘의 운세] 11월 30일 목요일(음력 10월 18일)
- [오늘의 운세] 11월 27일 월요일(음력 10월 15일)



주요기사

<p>경남대 제3회 USG 공유대학 직무박람회&청춘잡(JOB)담</p>	<p>구인모 거창군수, 시정연설 통해 2024년도 군정 방향 제시</p>	<p>가창적십자병원, 거창권 2023년 중증응급 이송·전원 및 진료</p>
<p>의령군, 농어업인 수당 포인트 연내 사용 당부</p>	<p>의령군, 전통가옥 초가지붕 이영 잇기 한창</p>	<p>의령군, 겨울방학 대학생 아르바이트 모집</p>